

# 양현종 호투·박찬호 맹타... 'KIA 위닝시리즈' 얼마만이나



한화와 시즌 6차전 5-0 영봉승... 주말 3연전 2승 1패  
양현종, 7이닝 무실점 시즌 2승... 박찬호 4안타 활약  
박흥식 감독대행 체제 첫 시리즈... 감독교체 충격 완화

‘에이스’ 양현종이 KIA 타이거즈의 위닝시리즈를 이끌었다.  
KIA가 1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 열린 한화 이글스와 시즌 6차전에서 5-0 영봉승을 거뒀다.  
KIA는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 첫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위닝시리즈에 성공했다.  
두 경기 연속 7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패전 투수가 됐던 양현종이 7이닝을 무실점으로 봉쇄하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신고했다.  
1회를 삼자범퇴로 연 양현종은 2회 선두타자 김태균에게 좌중간 2루타를 허용했지만, 최진행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이성열과 최재훈을 모두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3회도 세 타자만 상대한 양현종은 4회 1사 1루에서 송광민에게 두 번째 안타를 맞았지만,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남은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그리고 양현종은 5회 1사에서 기록된 세 번째 피안타를 끝으로 더 이상의 출루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이닝을 지워갔다.  
7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고 몰려난 양현종의 기록은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  
타석에서는 2번 타자로 나선 박찬호가 4안타쇼를 펼치며 주먹을 받았다.  
1회 1사에서 첫 타석을 맞은 박찬호는 중전 안타 이후 도루 실패로 몰려났지만, 3회 2사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좌측으로 공을 보내 팀의 선취점을 만든 박찬호는 이어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앞선 도

루 실패의 아쉬움을 달랬다.  
5회 3루수 땅볼로 몰려났던 박찬호는 이후 두 번의 타석에서도 안타를 터뜨렸다.  
7회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기록했고, 9회 1사에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서는 좌측 2루타와 함께 첫 4안타 경기를 벌였다.  
실수 연발 상대 야수진도 KIA에 힘을 실어주었다.  
2-0의 아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6회초 터커가 선두타자로 나와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출루했다.  
이명기가 투수 앞으로 번트 타구를 보냈고, 투수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터커가 홈에 들어왔다. 이어 우익수 이성열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타자주자 이명기까지 홈으로 쇄도했다.  
타이밍상으로는 세이프였지만 높게 송구된 공을 잡으려고 뛰어오른 포수 최재훈에 막힌 이명기가 베이스를 터치하지 못하면서 아웃이 선언됐다.  
하지만 김선빈이 내야안타로 분위기를 살렸고, 한승택이 볼넷을 얻어내면서 1사 1·2루가 됐다. 한화가 선발 김민우를 내리고 김경태를 투입하자 KIA가 박준태의 타석에 이창진을 투입했다.  
대타 작전은 성공했다. 이창진이 중견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로 2루에 있던 김선빈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상대 2루수가 포구 실책을 기록하면서 한승택까지 홈에 들어왔다.  
5-0으로 점수를 벌인 KIA는 고영창-전상현으로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하면서 시즌 두 번째 영봉승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잘했어” 1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서 KIA 박흥식 감독대행(오른쪽)과 양현종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5월의 매치 여왕’ 김지현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우승... 김현수 6홀 차 따돌리고 통산 5승

한화 소속 김지현(28)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은 19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골프클럽(파 72·62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김현수(27)를 6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개인 통산 5승을 달성한 김지현은 우승 상금 1억75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이 대회 결승에서 박성현(26)을 상대한 김지현은 당시 16번 홀까지 2홀을 앞서는 유리한 상



황을 지키지 못했다.  
17, 18번 홀을 연달아 내주고 연장에 끌려들어 간 끝에 준우승, 분투를 삼켰던 김지현은 3년 만에 다시 오른 결승에서 드디어 ‘매치 퀸’의 자리에 등극했다.  
김지현은 이날 오전에 열린 준결승에서 이름과 나이가 모두 같은 롯데 소속 김지현(28)을 1홀 차로 몰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반에 2홀 차로 앞서며 기선을 잡은 한화 김지현은 11, 12번 홀을 롯데 김지현에게 연달아 내주며 울스퀘어를 허용했다.  
그러나 14번 홀(파4) 버디로 다시 한 홀 차로 앞서 나갔고 이후 남은 홀을 모두 비겨 결승행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전날 16강에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골프 여제’ 박인비(31)를 몰리치고 최대 고비를 넘긴 김지현은 이어 열린 8강에서도 올해 한 차례 우승이 있는 조정민(25)을 꺾는 등 험난한 대진을 이겨냈다.  
/연합뉴스

## 광주오픈챌린저테니스 ‘킹’ 제이슨 정

단식 결승서 두디 셀라에 2-0... 남지성·송민규조 복식 준우승

제이슨 정(대만)이 2019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 대회 단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복식 남지성-송민규 조는 대회 2연패에 도전했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남지성은 전년 대회 복식 우승자로 대회 개최지인 광주의 와일드 카드를 받아 출전했다.  
제이슨 정(세계 129위)은 19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이스라엘의 두디 셀라(240위)를 6-4 6-2로 이기고 올시즌 챔



피언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2008년 프로에 입문한 제이슨 정이 챌린저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 대회 포함 네번째다. 2016년 청두챌린저 우승 이후 2017년 장자강, 2018년 샌프란시스코대회에서 우승해 해마다 한 번씩 우승 기록을 세웠다.  
제이슨 정은 이날 1세트 4-4에서 두디 셀라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6-4로 1세트를 획득했다. 2세트에서 정교한 서브와 스트로크를 발판으로 5대 1로 달아나 승세를 굳혀 우승을 확정했다. 제이슨 정은 우승상금 7200달러와 80점의 랭킹 포인트를 확보했다.  
복식 결승에선 시에장평(대만)-크리스토퍼 룡가트(인도네시아)가 남지성(세종시청)-송민규(KDB산업은행)를 6-3 3-6 10-6으로 이기고 부산 오픈에 이어 광주에서도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FC ‘무패 새 역사’ 쓴다

K리그2 오늘 서울과 홈경기... 12경기 연속 무패 도전

광주FC가 안방에서 팀 역대 최다 무패 기록에 도전한다.  
광주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이랜드와 하나원큐 2019 K리그2 1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11경기 연속 무패행진 속에 리그 1위를 지키고 있는 광주는 이 경기를 통해 팀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광주가 지지 않으면 팀 역대 최다 무패 기록이 완성된다. 12경기 연속 무패는 K리그 역대 4위 기록이기도 하다. 광주의 이전 연속 무패 기록은 지난 시즌에 작성된 11경기. 당시 아시안게임에 출전

한 ‘에이스’ 나상호의 공백으로 3승8무(승점 17)에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6승5무(승점 23)를 기록하며 선두 질주 중이다.  
펠리페가 9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에 올라있고, 중원에서는 여름을 중심으로 박정수와 최준혁 등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아슬만토프로 새로 진용을 짠 수비진은 이한도의 활약까지 더해 ‘짚물수비’로 리그 최소실점(6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정규시즌에서 패배를 잊었지만 지난 15일 광주는 FA컵을 통해서 시즌 첫 패배를 경험했다.  
광주는 ‘강적’ 수원삼성을 상대했던 FA컵 16강

전에서 0-3으로 지면서 시즌 첫 패를 남겼다.  
하지만 ‘승적’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광주는 그동안 경기에서 내리지 못한 선수들로 경기를 꾸려가면서 장기적인 시즌 운영을 위한 전략을 짰다. 또 주전선수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서울이랜드전을 대비했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와 맞대결에서 3승2무(11득점 3실점)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서울이랜드를 상대해 펠리페와 여름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광주가 무패행진의 시작점이었던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구단 최다 무패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중, 광주 중학야구 정상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우승  
‘최우수선수상’에 이준혁

무등중이 2019 광주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중장중에 0-1로 졌지만 최소실점에서 앞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중장중을 포함한 4개 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치러졌다.  
무등중은 진흥중과 첫 경기를 11-4, 5회 풀드승으로 장식한 뒤 동성중도 12-3으로 꺾으면서 2승을 거뒀다. 중장중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0-1로 졌지만, 최소실점에서 우위를 점하며 우승팀이 됐다.  
한편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는 이날



무등중이 2019 광주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중학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경기가 끝난 뒤 지역 야구 육성학교에 3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증정했다.  
◇대회 수상자 = ▲최우수선수상 : 이준혁(무등중) ▲우수투수상 : 류승민(무등중) ▲타격상 : 김호성(8타수 5안타/타율0.833·진흥중) ▲최다도

루상 : 김미르(2개·무등중) ▲최다타점상 : 김준연(6타점·진흥중) ▲감독상 : 강진(진흥중) ▲미기상 : 조형태(진흥중) ▲감독상 : 김성일(무등중) ▲지도상 : 이종우(무등중 부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